

프랑스 내 이민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안 상 욱 (부경대학교)
(ahnsangwuk@pknu.ac.kr)



국문요약

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 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2위를 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최다 득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있지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은 이민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이민자가 사회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제어 : 프랑스, 이민, 통합, 차별금지, EU

I. 서론

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을 채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7, 9).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의 전문에서 EU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6조는 유럽연합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존중’, 법치 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을 EU공동체법의 기본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전문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만인에 적용되는 차별로 부터의 보호’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the United Nations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등이 인정하는 보편적 권리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EU내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일련의 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EU는 인종차별을 시도하는 이론을 거부한다고 위의 지침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법무부 2008, 94-95).

1999년 12월 10일-11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고용 가이드라인 2000 (The Employment Guidelines 2000)”은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표로 한 일관적인 정책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1995년12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및 반유대주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제출하였다. EU이사회는 1996년 7월 15일 인종차별 혹은 외국인 혐오행위에 관한 위반과 관련해 회원국의 효과적인 사법협력을 강조하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에 맞서기 위한 공동행동”(96/443/JHA)12)을 채택했

다. 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가 채택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에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 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권 제 1권 2008, 94-95).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프랑스 이민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프랑스 차별금지 정책과 프랑스 이민문제에 대한 여론동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프랑스 이민사회의 특성

프랑스는 인구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OECD와 EU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이민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해외출생 인구 (단위: Stock)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41,344,354	42,390,705	43,289,646	43,738,901	44,525,458
독일	10,465,000	10,853,000	11,453,000	12,738,000	13,172,000
영국	8,064,000	8,482,000	8,988,000	9,369,000	9,183,000
프랑스	7,715,134	7,847,499	7,944,800	8,106,857	8,145,311
호주	6,570,240	6,729,730	6,912,110	7,139,440	7,333,420
스페인	5,958,308	5,891,208	5,918,341	6,024,523	6,200,932
이탈리아	5,737,213	5,805,328	5,907,452	6,053,960	6,175,337
스위스	2,289,560	2,354,837	2,416,394	2,480,032	2,519,068
터키	1,459,775	1,592,437	1,777,290	1,923,894	2,278,490
네덜란드	1,953,436	1,996,319	2,056,523	2,137,236	2,215,851
벨기에	1,775,561	1,786,080	1,849,287	1,893,433	1,932,797
스웨덴	1,533,493	1,603,551	1,676,264	1,784,497	1,877,05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스라엘	1,821,000	1,817,000	1,817,500	1,812,420	1,811,240
오스트리아	1,414,624	1,484,595	1,594,723	1,656,266	1,697,123
노르웨이	704,511	741,812	772,477	799,797	822,360
덴마크	476,059	501,057	540,503	570,581	591,678
헝가리	447,657	476,080	504,302	514,127	536,182
핀란드	304,279	321,977	337,162	357,541	372,802
룩셈부르크	237,693	248,888	260,573	270,745	280,772
슬로베니아	235,310	237,616	241,203	245,369	250,226
라트비아	271,126	265,418	258,889	251,465	246,040
에스토니아	196,558	194,664	193,813	192,535	196,207
슬로바키아	174,908	177,624	181,642	186,217	190,308
아이슬란드	37,230	39,221	42,020	46,515	54,592

출처: OECD.¹⁾

OECD의 해외출생 인구통계에서 프랑스는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해외출생 인구규모가 큰 국가이다. 또한 프랑스 해외출생 인구규모는 2014년 771만 5천명에서 2018년 814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해외출생 인구규모가 5.5%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독일 해외출생 인구규모는 2014년 1046만 5천명에서 2018년 1317만 2천명으로 25.8% 증가하였다. 2018년 독일 전체인구가 8291만 4천명이었고 프랑스 전체인구가 6694만 1천명임을 감안하면 해외출생 인구비율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1) OECD, Stock of foreign-born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표 2〉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 (단위: 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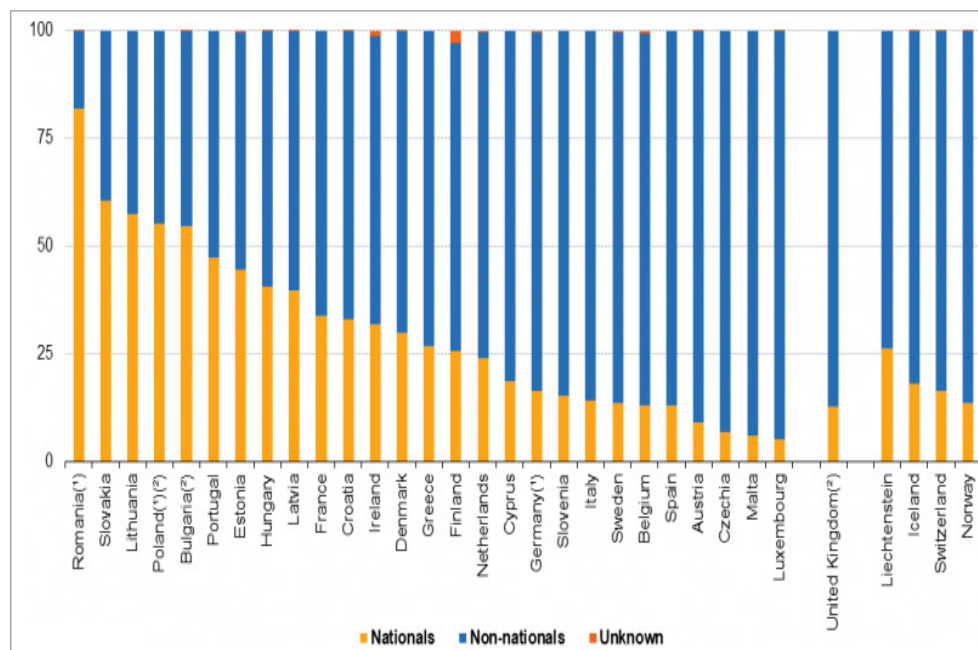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22,016,426	22,263,361	22,426,200	22,415,312	..
독일	7,633,628	8,152,968	9,107,893	10,039,080	10,623,940
영국	5,154,000	5,592,000	5,951,000	6,137,000	5,991,000
이탈리아	4,921,272	5,014,437	5,026,854	5,047,028	5,144,440
프랑스	4,199,934	4,335,449	4,542,000	4,704,000	4,616,763
스페인	4,677,059	4,454,353	4,417,517	4,419,455	4,562,962
일본	2,066,445	2,121,831	2,232,189	2,382,822	2,561,848
스위스	1,886,630	1,947,023	1,993,916	2,029,527	2,053,589
벨기에	1,268,081	1,276,903	1,333,243	1,366,500	1,388,900
오스트리아	1,066,114	1,146,078	1,267,674	1,341,930	1,395,880
한국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네덜란드	816,031	847,272	900,504	972,300	1,040,810
스웨덴	694,662	739,435	782,833	851,949	897,336
터키	456,506	518,279	650,308	816,410	919,061
아일랜드	603,700	605,554	607,408	566,600	593,500
노르웨이	483,177	512,154	538,223	559,227	567,783
그리스	687,119	706,720	686,419	538,400	..
체코	439,152	449,367	464,670	493,441	524,142
덴마크	397,300	422,559	463,147	484,986	505,992
포르투갈	401,320	395,195	388,731	397,731	421,711
멕시코	..	325,979	355,206	381,770	423,864
룩셈부르크	248,914	258,679	269,175	281,497	288,234
라트비아	304,835	298,433	288,946	279,446	272,531
핀란드	207,511	219,675	229,765	243,639	249,452
에스토니아	211,705	211,431	211,517	212,213	213,667
폴란드	101,204	108,279	149,586	210,328	239,230
헝가리	140,536	145,968	156,606	151,132	161,549
슬로베니아	96,608	101,532	107,766	114,438	121,875
슬로바키아	59,151	61,766	65,840	69,695	72,883
아이슬란드	22,744	24,294	26,485	30,275	37,830

출처: OECD.²⁾

2) OECD, Stock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외국인 인구를 국적을 기준으로 한 OECD 외인 인구통계에서, 프랑스 내 외국인 인구규모는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컸다. 프랑스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는 2014년 419만 9천명에서 2018년 461만 6천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는 2014년 763만 3천명에서 2018년 1062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2018년 외국인의 국적 취득비율 (단위: 전체 이민자 대비 %)



출처: Eurostat.³⁾

〈그림 1〉은 EU 통계기구인 Eurostat의 2018년 외국인의 국적 취득비율이다. 본 자료에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국적취득비율은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체코 등과 같은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적개념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외국인 이민자가 프랑스 국적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OECD 통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3) Eurostat, Distribution of immigrants by citizenship 2018 (% of all immigrants).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igration_and_migrant_population_statistics#Migration_flows:_Immigration_to_the_EU-27_from_non-member_countries_was_2.4_million_in_2018 (검색일: 2021. 01. 09.).

〈표 3〉 연도별 거주국 국적 취득자

연도	2000	2004	2010	2015	2018
미국	888,788	537,151	619,913	730,259	761,901
캐나다	214,568	194,130	143,579	251,144	176,470
프랑스	150,026	168,826	143,261	113,608	110,014
독일	186,688	127,153	101,570	107,317	112,340
영국	82,210	148,273	195,094	118,109	157,023
호주	71,923	88,470	119,383	135,596	80,562
오스트리아	24,320	41,645	6,135	8,144	9,355
스위스	28,700	35,685	39,314	40,888	42,630
벨기에	62,082	34,754	34,635	27,071	36,200
스웨덴	42,495	28,599	32,197	48,249	58,189
네덜란드	49,968	26,173	26,275	27,877	27,851
스페인	11,999	38,335	123,721	114,351	90,774
터키	..	8,238	9,488	..	..
뉴질랜드	29,632	22,227	15,331	28,468	36,840
일본	15,812	16,336	13,072	9,469	9,074
이탈리아	9,563	19,140	65,938	178,035	112,523
라트비아	13,482	17,178	3,660	1,897	930
노르웨이	9,517	8,154	11,903	12,432	10,268
한국	..	9,262	17,323	13,934	14,758
덴마크	18,811	14,976	3,006	11,745	2,836
헝가리	7,538	5,432	6,086	4,048	3,508
핀란드	2,977	6,880	4,334	7,921	9,211
멕시코	3,944	6,429	2,150	2,736	3,872
아일랜드	1,143	3,784	6,387	13,565	8,225
에스토니아	3,425	6,523	1,189	897	766
슬로바키아	4,526	4,016	239	309	721
체코	8,335	5,020	1,495	4,925	5,260
포르투갈	721	1,346	21,750	20,396	21,333
폴란드	975	1,937	2,926	4,048	4,593
룩셈부르크	684	841	4,311	5,306	11,864
아이슬란드	286	671	450	801	569
칠레	188	376	741	686	..
슬로베니아	..	..	1,840	1,255	1,978
그리스	..	..	9,387	12,837	27,857

출처: OECD.⁴⁾

4) OECD,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2018년 프랑스에서 해외출생인구가 814만 5천명이었는데,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는 2018년에 416만 6천명이었다. 이는 해외출생인구의 상당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해외출생인구 대비 프랑스 내 외국국적 인구는 56.6%였다. 독일의 경우, 해외출생인구 대비 독일 내 외국국적 인구는 80.6%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로 볼 때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국적 취득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프랑스 내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고, 외국인의 국적취득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지만, 프랑스 내 외국인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은 용이하지 않았다.

〈표 4〉 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실업율 비교 통계 (2019년)

	남성		여성		전체	
	해외출생	국내출생	해외출생	국내출생	해외출생	국내출생
그리스	23.5	13.1	34.6	20.3	28.6	16.3
스페인	16.7	11.6	21.3	14.8	18.9	13.1
스웨덴	14.6	4.5	16.6	4.5	15.5	4.5
터키	13.9	12.6	16	16.7	14.6	13.9
프랑스	12.4	8	13.9	7.7	13.1	7.8
이탈리아	11	9	15.6	10.5	13.1	9.6
핀란드	10.8	7.1	13.2	5.8	11.9	6.5
벨기에	10.3	4.7	10.4	3.8	10.4	4.3
덴마크	7.9	4.6	9	4.9	8.4	4.7
포르투갈	6.2	6.1	10.5	6.9	8.4	6.5
오스트리아	8.2	3.7	8.4	3.3	8.3	3.5
노르웨이	7.7	3.1	7.1	2.6	7.4	2.9
스위스	6.5	3.1	8.1	3.3	7.3	3.2
라트비아	7.9	7.3	6.3	5.6	7	6.5
룩셈부르크	6.8	4.3	6.7	3.8	6.7	4.1
캐나다	5.9	6.2	6.7	4.8	6.3	5.5
에스토니아	5.6	4	6.7	4.8	6.2	4.4
네덜란드	5.5	3.1	6.6	2.8	6	3
아일랜드	5.6	5.3	6.2	4.3	5.9	4.8
슬로베니아	4.9	4	7.5	4.8	5.9	4.3
폴란드	5	3.1	6.6	3.6	5.7	3.3

	남성		여성		전체	
	해외출생	국내출생	해외출생	국내출생	해외출생	국내출생
독일	6.1	2.9	4.9	2.3	5.6	2.6
리투아니아	5	7.4	6.2	5.7	5.6	6.5
호주	4.9	5.6	6.2	4.8	5.5	5.2
멕시코	5.2	3.6	5.6	3.7	5.3	3.6
아이슬란드	5.3	3.9	4	3.1	4.7	3.5
영국	3.7	4.1	4.9	3.3	4.3	3.7
뉴질랜드	3	4.4	4.2	4.7	3.6	4.6
이스라엘	3.5	3.8	3.3	4.3	3.4	4
미국	2.7	4.1	3.7	3.7	3.1	3.9
체코	1.3	1.8	4.9	2.3	2.9	2
헝가리	2.6	3.4	2.9	3.6	2.7	3.5
슬로바키아	..	5.7	..	6	..	5.9

출처: OECD.⁵⁾

OECD회원국의 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2019년 실업율을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내 외국인 실업율은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에서 해외출생 남성의 실업율이 12.4%, 국내출생 남성의 실업율이 8%, 해외출생 여성의 실업율이 13.9%, 국내출생 여성의 실업율이 7.7%, 전체 남성 실업율이 13.1%, 전체 여성 실업율이 7.8%이었다. 이는 프랑스 내 해외출생자의 실업율이 국내출생자의 실업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 해외출생 여성은 국내출생 여성에 비해서 실업율이 80%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프랑스 해외출생 남성은 국내출생 남성에 비해서 실업율이 55%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프랑스 내 해외출생 주민이 국내출생 주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반면에, 아일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국내출생 주민과 해외출생 주민 간 실업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5) OECD, Employment, unemployment, and participation rates by place of birth and sex.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Ⅲ. 프랑스 차별금지 정책

프랑스 내에서 EU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외국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2편의 제2장 ‘인간에 대한 침해’의 제5절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제1관 ‘차별’의 제 255조 1항은 차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출신, 성별, 가족상황, 임신, 외모, 성,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 성적 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조활동, 회원 또는 비회원, 실재하는 또는 추정상의 민족·국가·인종·종교를 이유로 개인 사이의 생기는 모든 구별은 차별이 된다(법무부 각국의 차별금지권 제 2권 2008, 401).

이와 같이 프랑스 형법은 차별에 대한 정의에서 민족, 국가, 인종에 의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 제1편 제3장 ‘차별’ 제2절 ‘비차별의 원칙’에서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채용과정이나 연수 또는 기업 내 훈련 기간에의 접근에서 제외될 수 없고, 어떤 근로자도 출신, 성별, 품행, 성적 지향, 연령, 가족상황, 임신, 유전적 특징, 회원 또는 비회원, 실재하는 또는 추정상의 민족성·국가·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또는 공제조합 활동, 종교적 신념, 외관, 가족의 성(nom), 건강상태, 장애를 이유로 제재를 받거나, 해고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히 보수문제와, 제3221조의3에 따라, 이익분배의 방법, 일의 할당, 연수, 복직, 임명, 자격, 등급,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프랑스 표현의 자유법(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33조는 “출신 또는 특정 민족(ethnie), 국가, 인종,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욕을 저지를 경우에는 1년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Lemonde 2008/07/12).⁶⁾

그리고 2018년 6월 27일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헌법 1조에 명기된 “인종(race)”이라는

6) Legifrance,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출처: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70722/2021-02-02/> (검색일: 2021. 01. 09.).

표현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1조는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2018년 6월 27일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개정안대로 헌법이 확정되면 프랑스 헌법 1조의 문구는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성별, 출신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로 수정된다.⁷⁾

“인종”이라는 단어가 프랑스 헌법에 도입된 것은 1946년이였다. 나치즘이 발호했던 2차 대전 이후에 19세기 식민지 역사 유산인 인종주의(thèses racistes)를 배격하기 위해서, 프랑스 헌법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인종”의 표현은 1958년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면서, 과학이 하나의 인류를 인정함에도, 인종이 존재한다는 견해에 합법성을 헌법이 부여하게 되었다.

프랑스 헌법에서 “인종” 표현을 삭제한다는 논의는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도 등장하였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가 사회당 후보로서 “인종이라는 표현은 공화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인종” 표현 삭제가 이슈가 되었고 당시 알랭 쥐페와 같은 프랑스 정치인들은 “인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일갈하였다. 우파 정치인들은 인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도 사람들은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프랑스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종적인 이유로 모욕을 저지를 경우에 프랑스 표현의 자유법 33조와 같은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 인종과 관련된 모욕이 빈번하게 행해졌다.

2013년 11월 13일 프랑스 극우파 주간지 미닛트(Minute)는 흑인 여성인 크리스티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종차별적 공격을 가했다. 본 주간지는 2013년 11월 13일자 발간된 표지 1면에 “원숭이처럼 교활한 토비라가 바나나를 되찾았다.”라는 표제하에 토비라(Taubira) 장관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⁸⁾ 프랑스에서 흑인은

7) Lemonde, L'Assemblée supprime de la Constitution le mot « race » et interdit la « distinction de sexe », (Lemonde 2008/07/12) 출처: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8/07/12/l-assemblee-supprime-dans-la-constitution-le-mot-race-et-interdit-la-distinction-de-sexe_5330615_823448.html (검색일: 2021. 01. 09.).

8)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정세 “흑인장관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4/view.do?seq=1039184&srchFr=&srchTo=&srchWord=%ED%9D%91%EC%9D%B8&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

원숭이에 비하되면서 인종차별을 받아왔다. 정부 부처의 장관이 인종차별을 받는 상황이기
에 일반인들이 받는 인종차별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 내 이민자의 사회통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 북부 교외도시에서 이민 2세 청년이 경찰 불심검문을 피하려다가
감전사해서 사망한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프랑스 내에서 이민 2,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표 5〉 이민 2,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 발생 현황

날짜	도시	촉발요인	피해상황
2005년 10월	프랑스 전역	아프리카계 이민 2세 청년이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 사건에 불만을 가진 이민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킴	이민배경 청년 2명 사망, 3000명의 시위자 체포, 2 억 유로의 재산상 피해
2012년 8월13일	아미앵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배경 청년 의 사망으로 분노한 북아프리카계 이민 2 세가 폭동을 일으킴. 높은 실업률도 중요 한 원인이 됨.	경찰 16명 부상, 학교와 공공건물이 불에 탐. 600 만유로 재산피해
2015년 11월13일	파리 (동시다발)	벨기에 태생 프랑스인, 튀니지 태생 프랑 스인, 프랑스인 등 IS 추정 범죄	130여명 사망, 300여명 의 부상자 발생
2015년 1월7일	파리	튀니지계, 알제리계 이민 2세 청년, 샤를 리 에브도의 이슬람 풍자에 불만을 품고 총기난사	12명 사망, 11명 부상
2016년 7월14일	니스	튀니지계 프랑스 국적 이민자, IS 추정 범 죄	84명 사망
2018년 5월12일	몽시니가	체첸공화국 출신 프랑스국적 청년, 도심 흥기 난동, IS 추정 범죄	1명 사망, 4명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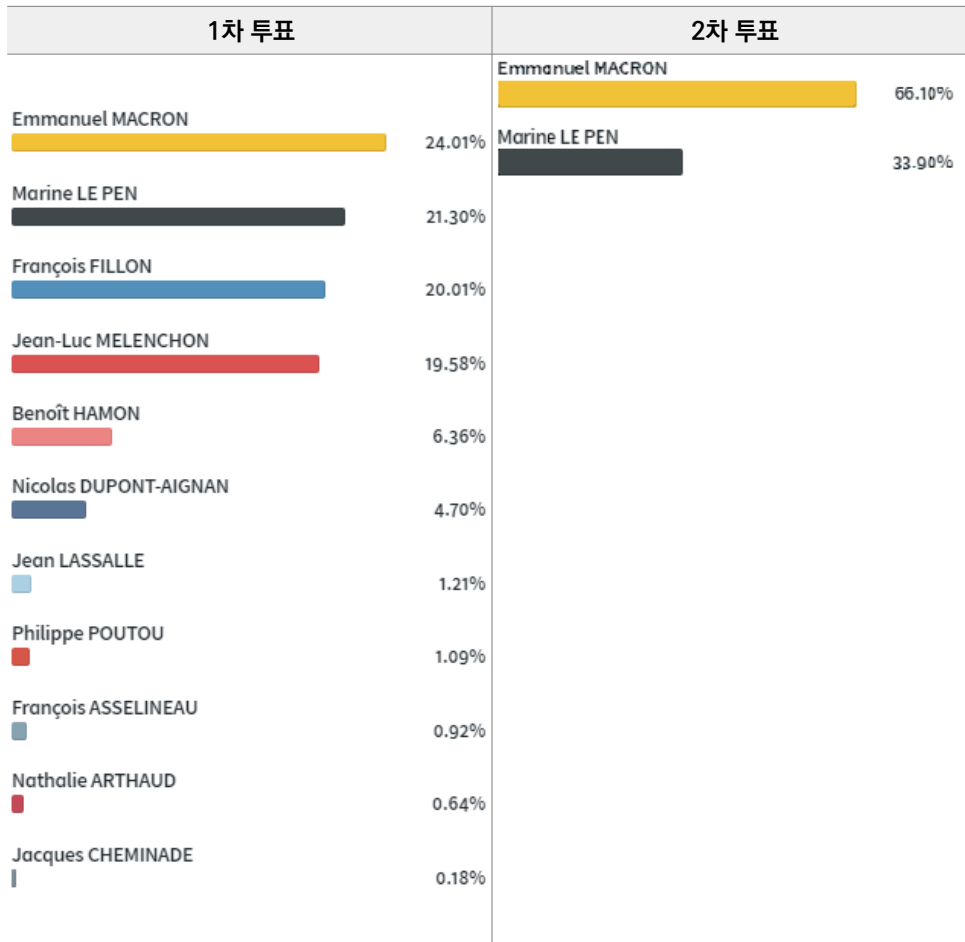
출처: 정은정 · 김대중 2019, 121.

amp;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 01.
09.).

IV. 프랑스 이민문제에 대한 여론동향

프랑스 내에서 이민자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제도는 이미 정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이민자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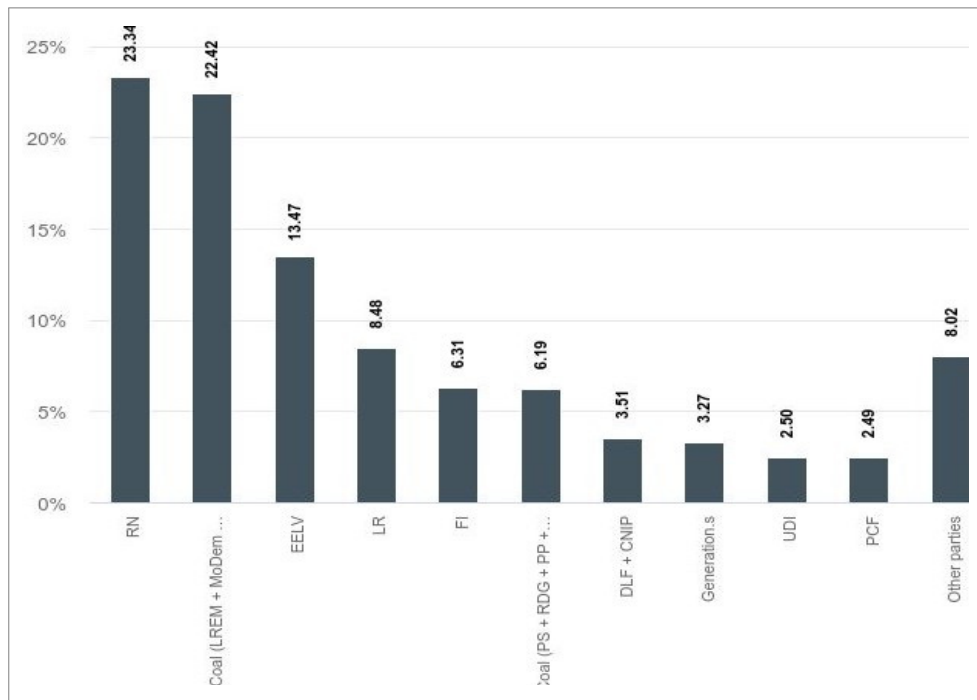


출처: France24.⁹⁾

9) France24,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2017. 출처: <https://graphics.france24.com/results-first-round-french-presidential-election-2017/> (검색일: 2021. 01. 09.).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프랑스 집권 사회당후보인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은 6.36%의 득표밖에 하지 못하였고, 중도우파 성향의 엠마누엘 마크롱 후보가 24.01%의 득표를 하였다.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가 중요하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프랑스 국민전선(Front national, 現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1차 투표에서 21.30%, 2차 투표에서 33.90%를 득표하였다.

〈그림 3〉 2019년 프랑스 내 유럽의회 선거결과



출처: 유럽의회.¹⁰⁾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 좌우 정당은 세력을 잃고, 극우파와 녹색당 지지 세력이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23.31%의 득표율로 22.4%인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집권당 레퐁블리크 영 마르슈(LREM)를 누르고 1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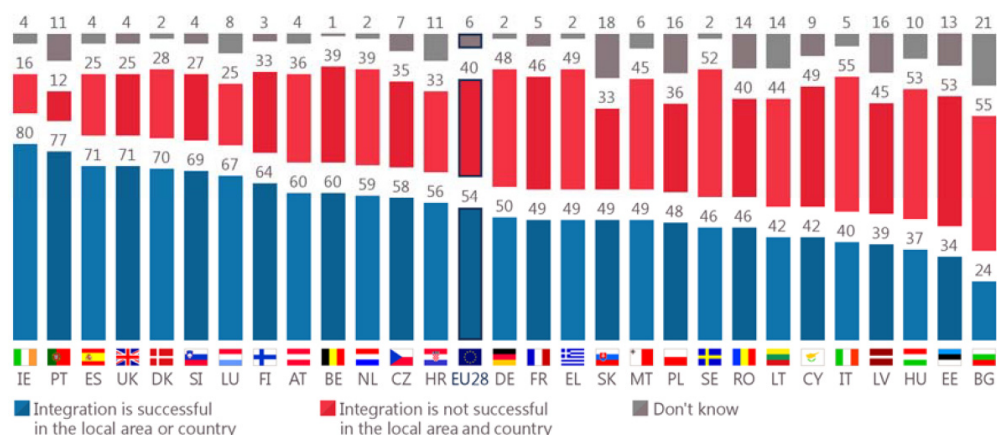
10) European Parliament, Results by national party: 2019-2024 France - Official results,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election-results-2019/en/national-results/france/2019-2024/> (검색일: 2021. 01. 09.).

차지하였다. 프랑스에 할당된 총 74석의 유럽의회 의석 중에서 극우정당인 RN은 22석을 차지하였다. 프랑스 집권 ‘전진하는 공화국(LREM)’은 민주운동(MoDem) 등 EU 통합 노선 3개 정당을 끌어모아 ‘르네상스연합(Coalition Renaissance)’ 연대를 구축했지만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프랑스에서 법률제도는 이민자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정치상황은 이민자 차별방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EU집행위원회 부설 설문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18)의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성공적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프랑스의 여론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49%, 부정적인 여론이 46%였다. 프랑스의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여론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사회가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이민자의 통합이 성공적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EU 회원국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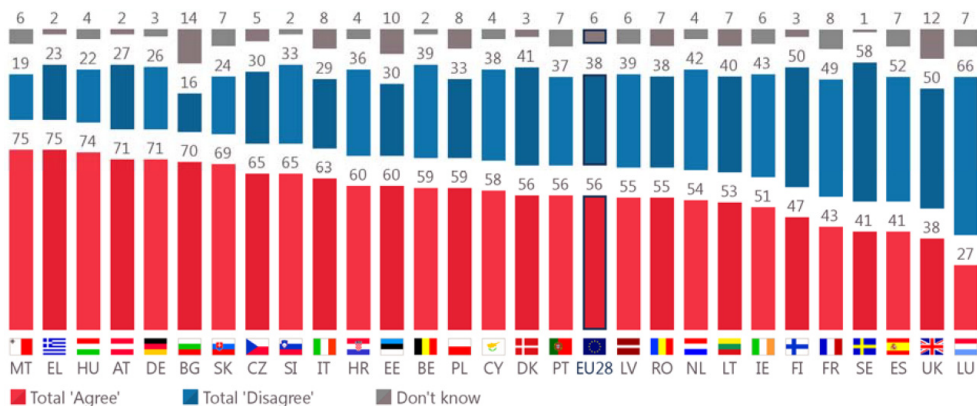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 62).

반면에 EU평균에서 이민자의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54%, 부정적인 여론은 40%였다. 물론 이탈리아와 같이 이민자의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55%에 도달한 EU회원국도 있었고, 이민자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80%인 아일랜드와 같은 회원국도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보고서에는 다른 항목의 의미있는 설문들이 많았다. 또 다른 설문의 사례는 이민자들의 사회복지 부담 가중여부에 대한 항목이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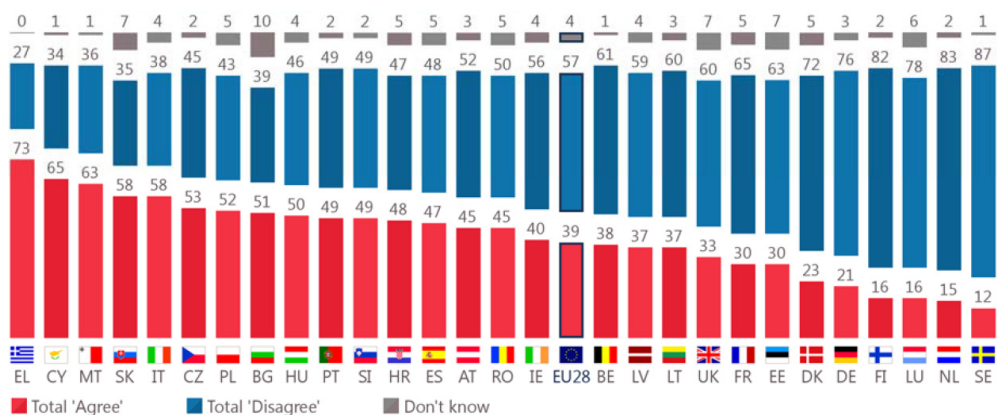
비해서도 이민자 때문에 사회복지 부담이 가중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민자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EU회원국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던 프랑스에서 사회복지부담에 이민자집단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EU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5〉 “이민자가 복지시스템에 부담을 주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EU회원국 여론조사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 77).

〈그림 6〉 “이민자가 당신의 국가에서 노동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가는가?”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EU회원국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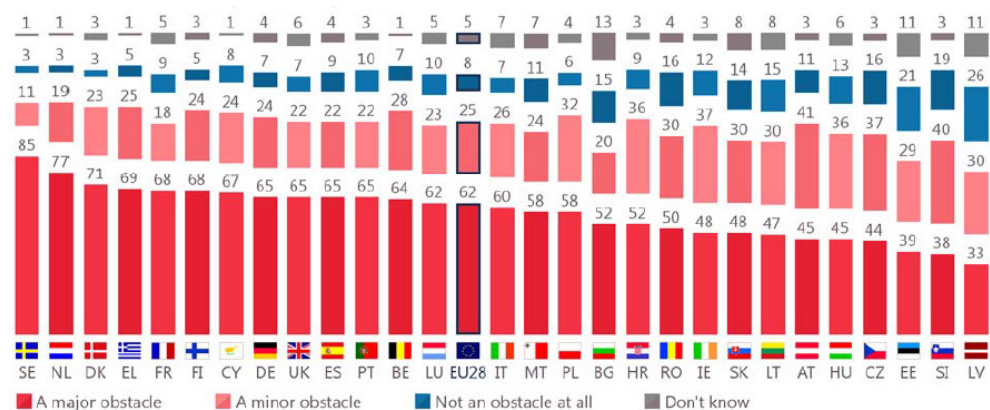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 79).

“이민자가 노동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30%,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였다. 이는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극우정당의 반이민 담론과는 프랑스 대중의 정서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중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이민자 통합에 장애물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68%가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답을 하였고 18%가 약간의 장애물이라고 답을 하였으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9%였다. 프랑스는 EU회원국 중 이민자 통합문제에서 이민자차별이 갖는 중요성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7〉 “이민자차별이 이민자 통합에 장애가 되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EU회원국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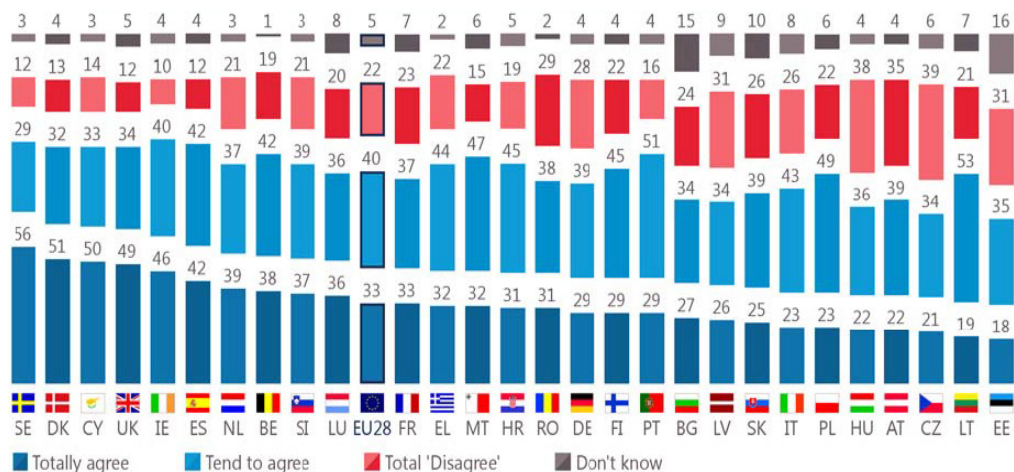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 100).

프랑스 대중은 이민자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 33%가 적극 동의하였고, 37%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하였으며, 2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다. 프랑스에서 대체로 이민자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2017년에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분포에서 스웨덴, 덴마크, 사이프러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서 EU의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이민자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어야 하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EU회원국 여론조사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8, 126).

V. 결론

본 논문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프랑스 이민사회의 특성을 다른 EU회원국 또는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하였고, 프랑스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인종차별문제와 이민 2세대와 3세대의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EU집행위원회의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프랑스의 이민사회인식에 대해서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유로바로미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검토하면,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에서 이민자 통합을 성공적으로 보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극우성향의 정당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론은 이민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이민자가 사회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이민자 통합에 중요한 장애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프랑스 사회는 판단하고 있었다.

이민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차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민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한국에서 이민자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김수원. 2009.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원광법학 25(3), 261-296.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1), 101-129.
- 김현주. 201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프랑스문화연구 31, 441-468.
- 박단. 2015. 샤슬리 엽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HOMO-MIGRANS 13, 83-102.
- 법무부. 2008. 각국의 차별금지권 제 1권.
- _____. 2008. 각국의 차별금지권 제 2권.
- 엄한진. 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은정 · 김대중. 2019.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민족연구 74, 116-136.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정세 “흑인장관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4/view.do?seq=1039184&srchFr=&srchTo=&srchWord=%ED%9D%91%EC%9D%B8&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 01. 09.).
- European Commission.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in Europe.
- _____. 2018. Special Eurobarometer 469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Parliament. Results by national party: 2019-2024 France – Official results.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election-results-2019/en/national-results/france/2019-2024/> (검색일: 2021. 01. 09.).
- Eurostat. Distribution of immigrants by citizenship 2018 (% of all immigrants).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igration_and_migrant_population_statistics#Migration_flows:_Immigration_to_the_EU-2

- 7_from_non-member_countries_was_2.4_million_in_2018 (검색일: 2021. 01. 09.).
- France24.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2017. 출처: <https://graphics.france24.com/results-first-round-french-presidential-election-2017/> (검색일: 2021. 01. 09.).
 - Legifrance.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출처: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70722/2021-02-02/> (검색일: 2021. 01. 09.).
 - Lemonde. L'Assemblée supprime de la Constitution le mot « race » et interdit la « distinction de sexe ». (Lemonde 2008/07/12). 출처: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8/07/12/l-assemblee-supprime-dans-la-constitution-le-mot-race-et-interdit-la-distinction-de-sexe_5330615_823448.html (검색일: 2021. 01. 09.).
 - OECD.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 _____. Employment, unemployment, and participation rates by place of birth and sex.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 _____. Stock of foreign-born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 _____. Stock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G> (검색일: 2021. 01. 09.).

● 투고일: 2021.02.02. ● 심사일: 2021.02.03. ● 게재확정일: 2021.02.21.

| Abstract |

Immigration Outlook and Perception Towards Immigrants in France

Ahn Sangwu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n 29 June 2000, the EU Council adopted the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individuals of ethnic or ethnic origin". Therefore,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by race or ethnicity from within the EU should be prohibited. France, a member-state of the EU, also includes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in criminal law and labor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However, despite the enactment of laws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immigrants in Fr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constant disturbance in France due to the accumulation of social complaints among immigrants. In France, far-right par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the far-right National Union (RN) won more votes than the other political parti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eld in May 2019. As such, far-right parties are emerging in France. Despite the rise of far-right party in France, French public opinion did not see immigrants taking away workers' jobs, nor did immigrants burden social welfare.

〈Key words〉 France, Immigration, Integration, Non-discrimination, EU